

광주 CGI 인력·장비로 만든 블록버스터 영화

내달 한·중·홍콩 동시개봉

‘삼국지-용의부활’...市 “광주 문화콘텐츠 메카 시흥”

광주시의 CGI(computer generated image·컴퓨터형성이미지)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제작된 블록버스터 영화 ‘삼국지-용의부활’이 전 세계에 선보인다.

CGI는 특수효과를 이용해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사용되는 가상 현실 장면을 연출하는 기술이다.

시는 “광주시의 CGI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돼 제작된 ‘삼국지-용의부활’이 오는 24일 서울에서 출연 배우 유덕화, 홍금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프리미어 시사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3일 한국·중국·홍콩에서 동시 개봉되는 ‘삼국지-용의부활’은 한국의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중국의 ‘홍콩 비주얼라이저’의 합작 프로

젝트다. 중국 현지에서 제작을 담당했고, CG(컴퓨터 그래픽) 등 후반작업은 한국의 ㈜믹스필름이, 마케팅은 ㈜SK텔레콤이 각각 맡아 아시아로 역수출해 동시 개봉하는 작품이다.

특히 광주시는 ‘삼국지-용의부활’ 프로젝트에 제작비 3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 등을 지원했다.

광주시는 흥행 성과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제작사와 협약하는 등 흥행 여부에 따라서는 투자 성과도 기대할 수 있게됐다.

또 대규모 전무신과 시대복원을 위한 판타지 이미지 등 영화 후반부 제작의 대부분을 광주 소재 ㈜믹스필름(금호생명빌딩 글로벌CG제작센터)이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삼국지-용의부활’은 중국 측나라의 하층민인 조자룡의 활약을 그린 영화로, 삼국통일 과정에서 영웅들의 긴장감 넘치는 대결, 살아있는 대사와 실감나는 액션을 그려내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여성 희망포럼

2천~5천명 곧 출범

광주 지역 여성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협력체가 만들어진다.

광주시는 광주 지역 여성 2천~5천명이 참여하는 가정 ‘광주여성 희망포럼’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열린 2007 광주 세계여성 평화포럼에서 세계여성 평화네트워크 발족을 제안하기 위해 채택된 ‘광주선언’에 따른 것이다.

포럼의 활동 범위는 국내와 여성 문제에 대한 광주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제를 설정하며 대안 생산과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선 정치·법률·복지·교육·인문·문화 등 15개 가량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분과별로 과제를 선정, 토의를 거쳐 자료집을 발간한다.

광주시청앞 비엔날레 조형물 살리기로



시민 의견 조사 결과 따라...사계절 천갈이 2회로 관리비 절감

관리상 어려움으로 철거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청사 앞 조형물이 그대로 존치된다.

광주시는 20일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념 조형물인 ‘기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1%)인 196명이 현 위치에 존치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387명 가운데 20%인 78명은 ‘현상유지’, 71명(18%)은 ‘철거’를 주장했으며 ‘다른 장소로 이전’은 42명(11%)에 그쳤다.

시는 이에 따라 조형물을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는 대신 당초 봄·여름·가을·겨울 등 사계절용인 외피를 봄·가을 등 2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시가 당초 작가가 제시한 4개월 디자인 컨셉과 달리 봄과 가을의 ‘아지랑이’와 ‘물방울’ 디자인만을 남기기로 한 것은 여름·겨울 디자인은 색감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든 여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의외도 신소재로 교체하면 연간 5천만원 가량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u-페이먼트’ 기반구축 차질

광주시 민간 사업자와 협상 결렬 사업자 재공모...일정 지연 불가피

광주시가 추진중인 ‘u-Payment’ 환경구축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u-Payment’ 환경 구축사업은 한장의 카드로 공공서비스 대중교통, 민간 유통서비스 분야 등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휴대폰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일 “u-Payment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L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최근 협상이 결렬됨

에 따라 사업자 재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L컨소시엄에 민자 450억원을 들여 표준카드와 단말기 보급, 정산센터 구축 등 사업을 올 안에 완료토록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사업비 확보와 시행상의 어려움을 들어 1차적으로 270억을 올해 투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

시는 또 ‘u-Payment’ 기반시설을 택시, 버스, 유통, 공공 분야 등 금융

거래 전 부문에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들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L컨소시엄은 시의 일괄 추진 방침과 달리 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반구축사업을 제안,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10일까지 ‘u-Payment’ 기반구축 사업자를 재공모, 4~5월께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2008년이었던 사업 완료 시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는

되는 전체적인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당초 ‘u-Payment’ 기반 구축 사업을 토대로 오는 4월께 국토해양부가 공모하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시범사업’에도 공모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국비 39억원이 제공되는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은 내년부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버스·지하철을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하는 교통카드 호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문화재 주변 건축허가 기간 단축

30일서 2~3일로...형상변경 기준안 마련

광주시 동·서구 관내 보물급 문화재 주변의 건축민원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0일 “시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광주 동오층 석탑(보물 제110호), 남구 서오층 석탑(보물 제109호) 일대에서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기준이 되는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

준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안이 문화재청 중앙문화재 심의위를 거쳐 확정, 공고될 경우 그동안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를 위해 평균 30일 가량 걸렸던 건축민원 처리기간이 2~3일 내로 단축된다.

주민들은 그동안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화재청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신·증축했다.

이전에 마련된 기준안에 따르면 동오층 석탑이 있는 광주시 동구 자산동 448-4번지 일대에서는 5개 구역별로 지상 7.5m(2층 이하)~40m(10층 이하) 이하 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다.

또 서오층 석탑이 있는 광주시 남구 구동 일대 16-2번지 일대도 5개 구역별로 8m(2층 이하)~24m(6층 이하)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Sense Wood 신품가구 80~70%

봄 맞이 본사지원

Big Sale

1인용 소파

2인용 소파

3인용 소파

4인용 소파

5인용 소파

6인용 소파

7인용 소파

8인용 소파

9인용 소파

10인용 소파

1인용 침대

2인용 침대

3인용 침대

4인용 침대

5인용 침대

6인용 침대

7인용 침대

8인용 침대

9인용 침대

10인용 침대

1인용 책상

2인용 책상

3인용 책상

4인용 책상

5인용 책상

6인용 책상

7인용 책상

8인용 책상

9인용 책상

10인용 책상